‘우리 마을버스 이름 지어주세요’

전주시, 31일까지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버스 명칭 시민 공모 추진

버스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 중인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오지를 운행하는 전주시 마을버스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짓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 마을버스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혁신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평화·동서학동, 우아·인후동, 여의·조촌동 등 도시외곽의 농촌 마을과 고지대 등 교통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적자노선에 운행되었던 대형버스를 대체함으로써 시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모 주제는 전주시 마을버스 명칭으로, 운행 지역의 특색과 마을버스의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hwkook33@korea.kr), 휴대전화 문자메세지(010-5034-5103), 우편(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5층 버스정책추진단)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명칭을 대상으로 1차 부서 자체검토를 거친 후 전주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신성, 전달성, 상징성, 적합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1명), 우수(1명), 장려(1명) 작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중순 발표될 예정으로, 최종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버스정책추진단(063-281-5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변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지역 특성과 마을버스 상징성을 나타내는 참신한 명칭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책 등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남규 시의원, 의회발전공로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송천1·2동)이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19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제5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올해의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회 6선 의원으로서 22년 동안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전주 한옥마을보존활동과 한옥마을 명소화 사업에 적극 나섰고 국제영화제 전주유치로 전주시의 위상을 높여 세계 속에 전주를 알리는데 앞장서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날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의원의 소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큰상을 받아 더욱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푸른 하늘 아래 풀 뜯는 한라마 22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말 방목지에서 승용마로 개발된 ‘한라마’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내산 승용마 ‘한라마’는 조랑말로 알려진 제주마와 경주마인 더러브렛의 혼혈종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주시,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가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시민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완산도서관에서 전주지역 작은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와 타 지역 우수작은도서관 관장 등을 초청해 역량강화 교육인 ‘2019년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실제 업무 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반영해 기획된 것으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보드게임 운영방법 △연간업무계획 △작은도서관 용어정리 등 실무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책꽂이와 CLIB(클립) 사용 교육 등도 진행돼 작은도서관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동희 씨(옹달샘작은도서관)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 활용 가능한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 무척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자전거 한마당, 26일 개최

전주종합경기장-기린대로-효성탄소공장 되돌아오는 10㎞ 코스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함께 가을로 물든 전주도심 도로에서 자전거 행진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시와 LX는 오는 26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기린대로를 타고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까지 왕복 10㎞ 구간에서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19 전주시민 자전거 한마당’을 펼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전 9시 30분 전주종합경기장을 출발해 기린대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까지 왕복하는 자전거 행진을 펼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외발·이색자전거 체험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안전홍보관 △녹색에너지 홍보관 △자전거 관련 다양한 만들기 체험관 등 자전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LX 소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단의 팬 사인회와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시민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평소 달려보지 못한 도로를 달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즐거운 자전거 체험마당을 통해 자전거와 보다 더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자동차를 대신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자전거 행진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면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전주 자전거 한마당에 많은 보다 시민들이 참여해 자전거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행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민자전거행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281-2562)로 전화 또는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공영자전거 체험 신청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신청 받고 있으며, 공영자전거 행진 참가자는 행진 당일 자전거의 대여·반납을 위해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장애인 맞춤훈련생 채용예정자 7명 확정

6주동안 진료보조 등 직무교육·실무교육 등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게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장애인(맞춤훈련생)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사무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할 7명의 채용예정자를 확정하고 맞춤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맞춤훈련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전북대병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는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지난 21일 맞춤훈련 입학식과 함께 교육에 들어간 7명의 채용예정자들은 앞으로 6주간 사무보조 및 진료보조 등의 직무교육을 비롯해 현장실무와 직장예절, 사회성 훈련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5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훈련 등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이야기의 숲에서 마을 이야기 공유해요

전주시·전주문화재단, ‘마을 동심 박람회’ 개최

26일 에코시티 세병공원서
주민 교류·연대 강화 기대

전주시가 곳곳에 숨겨진 각각의 동네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마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축제를 연다.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송천동 에코시티 세병공원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듣고, 보고, 체험하는 ‘2019 마을 동심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주이야기의 숲, 설래임(設來林)’을 부제로 한 이번 동심 박람회는 시와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시한 마을조사의 결과물인 ‘마을조사서’를 활용해 기획한 행사로, 우리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마을 이야기를 꺼내 시민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마을조사서는 시와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심(洞心)찾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각 동의 역사와 생태, 문화자원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마을에 대한 기억을 구술 채록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날 세병공원에서는 △마을이야기 체험 부스 운영 △우리 마을 이야기 및 마을동화 발표 △마을동화 인형극 △설래임 상징 조형물 함께 만들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각 동 마을술사들과 함께 개발한 마을 탐방코스 등 결과물 전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8월부터 각각의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 이야기를 이웃과 마을방문객에게 소개할 마을술사 양성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우리 마을 이야기 및 마을동화 발표 시간에는 샌드아트와 피아노 연주가 더해져 세병공원에서 산책하는 시민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그간 실시해온 전주시 마을조사의 결과물인 마을조사서를 활용해 마을술사들과 함께 발굴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주민들이 주체가 돼 각 마을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함께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간 교류 및 연대가 강화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이야기의 숲, 설래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마을 이야기 구연 등의 본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정기회의 개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이 22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개 분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정책제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 문화, 도시, 복지, 체육, 인권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정책 의제를 분야별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제하여, 향후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프로세스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의회 기본 조례의 필요성,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의 한 축으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빈집 맞춤형 정비사업, 도시관련 사업 사후만족도 평가단 운영, 복지 시티 지향을 위한 노후생활 유인 정책의 제도화 방안 등 분야별 쟁점 현안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정책안이 기본 구상 방식으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과 공유되는 의정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전주시에 제안토록 할 계획이다.

박병술 의장은 “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각 분야별 전문가이신 정책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바로 듣고, 의장단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 활용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안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도시건설위, ‘성평등전주’ 방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 의원)가 22일 성매매업소가 성평등 실현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완산구 서노송동 「성평등전주」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서노송예술촌 내 다섯 번째 매입한 5호 건물이 전국 최초의 사회혁신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인 ‘성평등전주 커먼즈필드’라는 명칭의 현판식을 가짐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 청취 등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성평등전주에 입주 조직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 없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